

한국의 연중행사는 계절 별로 다양하다. 먼저 한국의 신년은 “설날” 과 함께 시작된다. 설날은 일본의 お正月와 같은 의미가 있는 날로 한국에서는 음력으로 년을 세기때문에 우리들은 음력 1월 1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날 아이들은 한국의 전통 옷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을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귀여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지 세뱃돈을 주신다. 아이들은 용돈이 그것도 보통때는 수중에 들어 오지않는 거액의 돈이 들어오기때문에 너무 기쁜 날이 된다. 또, 설날에는 여기저기에 흩어져살고 있던 가족 전원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모여 설날을 축하 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매년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귀성전쟁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한국인의 귀성본능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발달되어 있는지 괜실히 궁금해 질 정도다. 게다가 일본의 おぼん과 같은 추석이 9월경에 있어서 그때 역시 한국인의 귀성본능이 여지없이 발휘 된다. 이것들 이외에도, 옛날에는 매월 행사가 있어서 매월 가족과 친척들이 무언가를 축하하기위해 모였다고 했으나, 그것은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이기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근래의 젊은이들에게 전통행사는 별로 의미도 없는, 귀찮은 일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것보다는 서양의 화려한 발렌타인 데이 든지 크리스마스가 더 가깝게 여겨지는 듯하다. 게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화이트 데이 든지 로즈데이등 국적불명의 행사가 넘쳐흐르고 있다. 상술이라는 알뜰한 속임에 넘어가 정말로 지켜야 할 전통 행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않은가 염려가 된다.

우리들은 다리 역할이 되어 다음세대에 전통행사를 전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